

노인과 고독의 의지 그리고 Vita Nova

- 영화 <퍼펙트 데이즈>를 중심으로

서동수*

1. 서론
2. 외로움이라는 유사 고독과 존재의 고립
3. 고독의 역능과 존재의 개방성
 - 3-1. 고독의 절차로서 '반복'과 의지
 - 3-2. 실어증과 거식증 그리고 세계의 거부
 - 3-3. 사물의 목소리와 고통의 시학
4. 결론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빔 벤더스 감독의 영화 <퍼펙트 데이즈>를 중심으로 초고령사회 속 노인의 고독이 갖는 의의와 역능을 고찰하는 데 있다.

오늘날 고독은 더 이상 환대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성공적인 노년의 방해물이거나 질병의 차원으로 취급되고 있다. 하지만 영화 <퍼펙트 데이즈>는 오늘날이야말로 무엇보다 고독이 요청되는 시대이며, 고독이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영화 속 주인공이자 60대 중후반의 노인인 히라야마가 보여주는 고독의 수행 과정은 일반적인 외로움과는 차이가 있다. 외로움이 관계의 상실과 인간적 경험 그리고 사유 능력이 소진된 무기력 그 자체라면, 히라야마가 보여주는 고독은 자신을 동료로 삼아 존재의 개방성으로 나아가는 의지이다. 특히 히라야마의

* 신한대학교 리나시타교양대학 조교수

반복된 생활과 유사 실어증과 거식증은 구성된 세계의 욕망으로부터 빠져 나가는 방법이자 의지의 양태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행을 통해 그는 사물의 존재 자체에 접근하게 된다. 배제되고 타자화된 사물-대상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것들과의 교감을 통해 세계가 주지 못하는 감흥과 만나게 된다.

히라야마는 세계 내에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자신만의 충만한 세계를 구성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퍼펙트 데이즈'의 주인공이 된다. 이처럼 영화는 고독의 존재 이유와 그 역능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주제어: 빔 벤더스, 〈퍼펙트 데이즈〉, 노인, 고독, 외로움, 전체주의, 의지, 반복, 실어증, 거식증)

1. 서론

본고의 목적은 빔 벤더스(Wim Wenders) 감독의 영화 〈퍼펙트 데이즈〉(2023)를 중심으로 초고령사회 속 노인의 고독이 갖는 의의와 역능을 고찰하는 데 있다. 한때 고독을 긍정하고 숭상하던 시대가 있었다. 고독은 현자의 몫이었다. 고독 속에서 수행하는 치열한 사유는 열린 세계를 보는 눈이 되었다. 또한 고독은 고대로부터 고난과 함께 영웅의 필수 조건이었다. 고향인 이타카로 돌아오기까지 10여 년을 방황했던 오디세우스나 아내와 갓난 자식을 두고 죽음의 운명을 받아들였던 헥토르를 불멸의 영웅으로 세운 것은 고독의 힘이였다. 고독의 가치는 종교에서 빛을 발했다. 종교에서 고독은 절대적 진리와 마주하기 위한 단독자의 의식이였다. 모세가 토라를 받은 것은 시나이산에서 홀로 40일을 견뎠기 때문이며,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은 것도 홀로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이었다. 예수와 석가모니도 고독의 수행을 멈추지 않았다. 중세 수도원은 침묵과 고독에 영혼을

바친 자들의 세계였다. 수도사들에게 침묵과 묵상, 명상, 기도는 모두 고독의 수행이었으며, 이를 통해 비로소 “신, 그대는 내 이웃”¹⁾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초고령화 시대는 더 이상 고독의 존엄을 수용하지 않는다. 고독은 더 이상 “사회가 자기를 더럽히는 것을 허용하기보다는 깨끗해지고자 하는 숭고한 경향을 보여주는 덕”²⁾이 아니다. 오히려 “가족 및 교우관계의 상실이나 변화된 사회경제적 지위에 적응하지 못하여 느끼는 상실감”이자 “노인이 겪는 다양한 사회문제의 원인”³⁾으로 전락했다. 행복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오늘날 노인들의 지상 과제는 ‘성공적인 노화’이다. ‘항노화 산업 시스템’이 생산한 이 주술은 고독을 질병이자 낭비로 치환한다. 『외로움의 철학』의 저자 스벤젠은 노인의 외로움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 외로운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으며, 외로움이 강력한 사망 예측 변수가 된다. 또 외로움은 혈압과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신체 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 이외에도 인지 기능의 약화, 노화의 가속화, 우울증 등과도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⁴⁾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보다 확산되고 정교해지고 있다. 정신의학, 상담심리, 사회복지, 종교 등 전방위적으로 고독은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지지 그리고 성공적인 노화에 부정적이며, 배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⁵⁾ 심지어 노(老) 철학자도 ‘고독이라는 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

1) 라이너 마리아 릴케, 「신, 그대는 내 이웃」, 『고독』, 윤동하 역편, 태학당, 1992, 30쪽.

2) 라르스 스벤젠, 『외로움의 철학』, 이세진 역, 청미, 2024, 170쪽.

3) 김준표·남석인, 「노인의 고독감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제35권 3호, 한국노년학회, 2015, 671쪽.

4) 라르스 스벤젠, 앞의 책, 40쪽.

5) 이종운·이미애, 「도시거주 고령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고독감과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4권 2호, 한국콘텐츠학회, 2023, 497-506쪽; 김준표·남석인, 「노인의 고독감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

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⁶⁾이라며 고독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그들에게 고독이나 외로움은 심각한 장애물이자 고통스러운 감정이며, 관계의 단절을 야기하는 심각한 ‘정신 질환’이 되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고독은 그 위상과 효용가치를 상실한 쓸모없는 상태이자 성공적인 노년의 방해물로 인정해야 하는가? 고독은 고대로부터 진리에 이르는 여정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독을 ‘진리’와 마주치는 사건’으로 보았다. 그는 인간의 최대 행복은 관조적 삶이며, 이는 “인간이 혼자 힘으로 행하는”⁷⁾ 고독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요한 게오르그 치머만에게 고독은 자유와 독립을 빚어내 영혼을 고양시키는 동인이었다. 르네상스 시기 최초로 고독에 관한 책을 쓴 페트라르카나 헨리 데이비드 소로에게 고독은 타자들의 요구에서 자유로워지고 자기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계기였다.⁸⁾ 고독을 찬미하는 주장들의 공통점은 고독의 절차가 우리를 세계와 분리시키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며, 감각할 수 없었던 것들과의 조우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고독은 평생 우리에게 들려붙은 타자의 욕망을 떼어내고 이질적인 것들과의 만남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비로소 ‘새로운 삶(Vita Nova)’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파한다.

빔 벤더스 감독의 영화 <퍼펙트 데이즈>(2023)⁹⁾는 이러한 고독의 역능에 관한 하나의 가능성이자 사례이다. 영화 속 주인공인 노인 ‘히라야마’가

년학』 제35권 3호, 한국노년학회, 2015, 671-687쪽.

6) 김형석, 『고독이라는 병』, 비전과리더십, 2022, 248쪽.

7)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스 윤리학』, 천병희 역, 숲, 2022, 99쪽.

8) 라르스 스벤젠, 앞의 책, 7장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9) 이 영화는 제76회 칸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야쿠쇼 코지), 에큐메니컬상(빔 벤더스)을 수상했으며, 이 외에도 여러 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 등 각종 부분에서 수상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 7월에 개봉했다.

보여주는 고독의 절차와 실천이 어떻게 '지금 여기'와 전혀 다른 삶과 욕망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여정이 어떻게 존재론적으로 진리와 행복의 발견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진지하게 그리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영화 <퍼펙트 데이즈>를 통해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오늘날 고독의 존재론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외로움이라는 유사 고독과 존재의 고립

흔히 고독과 혼용되는 감정으로 외로움이 있다. 이른바 유사 고독이라 부를 수 있는 이 감정은 독립적이면서도 고독과 겹치는 지점이 있다. “외로움은 흔히 ‘홀로 있음’, ‘쓸쓸함’ 등의 감정으로 불리고 있다. 영어에서 ‘외로운(lonely)’이라는 단어가 쓰인 글로 가장 오래된 용례는 셰익스피어의 『코리올라누스』(1605~1608)이다. 여기서도 ‘외로운’은 완전히 홀로된 상태를 가리킨다.”¹⁰⁾ 하지만 외로움(loneliness)과 홀로 있음(aloneness)은 동의어가 아니다. 『지루함의 철학』으로 알려진 라르스 스벤젠에 따르면 ‘혼자인(alone)’ 것은 기본적으로 수와 관련된 단어일 뿐, 주위에 다른 이들이 없다는 사태 외에는 지시하는 바가 없다고 보았다. 타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외로움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도 개인차가 존재한다. 스벤젠은 사람들의 수 대신 홀로 있는 시간에 의미를 둔다. “혼자(alone)라는 것은 ‘올원(all-one)’, 즉 나 하나가 모든 것인 바로 그 지점이며, 이는 최고의 순간과 최악의 순간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상황”¹¹⁾이다.

10) 라르스 스벤젠, 앞의 책, 24쪽.

한나 아렌트는 외로움을 정치적 차원, 특히 전체주의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아렌트는 고독과 구별되는 고립(solitude)과 외로움(loneliness)을 언급한다. 아렌트에게 고독은 “나 자신과 교제하는 실존적 상태”, 즉 “내가 나 자신을 동료로 삼고 있는 인간적 상황”¹²⁾이다. 반면 고립은 “내가 하나 속의 둘로 분리되지 않은 채 자신을 동료로 삼을 수 없이 나만이 외롭게 있는 상태”¹³⁾이다.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고립과 외로움을 전체주의의 중요한 토대로 보고 있다. 자신을 객관화할 수 없는 고립과 외로움 속의 존재는 관계의 상실과 함께 인간적 경험과 사유의 능력 모두를 상실한 무기력 그 자체이다. 전체주의는 바로 이 지점을 공략해 들어가는데, 전체주의 운동은 “원자화되고 개인화된 대중의 특별한 조건에 더 의존”¹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로움으로 인한 자아 상실은 자아를 발견하고 정립할 자기 안의 타자를 신뢰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세상에 대한 기초적 확신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이는 자아와 세계뿐 아니라 사유하고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상실한 것이다.”(286) ‘세상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고립에 기반한 전체주의의 “이상적인 신하(臣下)는 골수 나치나 골수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사실과 허구(즉 경험의 현실)의 차이와 참과 거짓(즉 사유의 기준)의 차이를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281)

전체주의 운동은 원자화되고, 고립된 개인들의 대중 조직이다. 다른 모든 당과 운동을 비교할 때 전체주의 운동의 가장 뚜렷한 외적인 특징은, 개인 성원에게 충체적이고 무제한적이며 무조건적이고 변치 않는 충성을 요

11) 위의 책, 13쪽.

12) 한나 아렌트, 『정신의 삶-사유와 의지』, 홍원표 역, 푸른숲, 2023, 136쪽.

13) 위의 책, 289쪽

14)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2, 이진우·박미애 역, 한길사, 2023, 35쪽. 이하 본문에서 면수만 표기함.

구하는 것이다.(중략) 그러한 충성심은 완전히 고립된 인간에게서만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는 사회적 유대관계도 없고, 심지어는 단순히 아는 사람도 없이 단지 운동에 속해 있다는 사실과 당원 자격으로부터 사회적 존재의 의식, 즉 이 세상에 자기 자리가 있다는 의식을 이끌어낸다.(44)

고립된 개인이 전체주의에 충성심을 보이는 이유는 이념의 논리적 추론에 대한 맹신 때문이다. 이데올로기의 '이념'은 플라톤이 말한 정신의 눈으로 포착된 영원한 본질도 아니고 칸트가 말한 이성의 조정 원칙도 아닌 그저 '설명'의 도구'이다. 즉 이데올로기의 시선에서 역사는 '사건'이 아니라 이념의 논리를 통해 추정하고 해석할 수 있는 논리적 추론의 영역이다. 그렇기에 이데올로기 차원의 역사는 어떤 외부 요소도 필요 없이 이념 자체의 논리에 따라 발생하는 운동이자 이념 자체의 결과이다. 모든 것이 이념의 논리로 이해 가능하다는 믿음 안에서 역사적 경험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세계로부터 뿌리 뽑히고, '자아도, 타자도 세상도 필요 없는 외로운 인간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논리적 추론뿐이다. $2 \times 2 = 4$ 라는 자명한 공리처럼 이념의 논리성은 절대적인 외로움의 조건 아래서조차 뒤집힐 수 없'(286)는 진리가 된다. 실제로 볼셰비키 숙청 당시, 저지르지 않은 죄의 자백을 긍정하는 사건이 있었다. 트로츠키의 논리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당은 항상 옳았으며 너는 그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당과 더불어 그리고 당에 의해서만 항상 정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역사는 정당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가 자백하지 않으면 당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네가 행하지 않은 죄를 자백하는 것은 당의 정당성을 수호하는 일이다'라는 논리가 그것이다.(279)

이처럼 사유와 경험의 능력을 상실한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이념

의 논리에 자발적으로 의탁하는 것이다. 아렌트의 주장은 아이히만 외에도 뉴라이트, 태극기부대 등 극우 성향의 노인들과 정치인에게 테러를 가했던 노인을 이해하는 참조점이 될 수 있다. 그들 내부에서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하게 믿음직한 진리”(286면)인 이념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매일의 일상사에는 관심이 없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중요한 이데올로기 문제에만 관심이 있어서, 인간은 자신이 2000년에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위대한 임무를 위해 일하고”(32) 있다고 믿는 이념의 순교자이다. 결국 외로움과 고립에서 배양된 전체주의 지배는 “정치적 인간을 고립시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정치적 인간의 삶의 무대인 공적 영역을 파괴한다. 이런 지배의 가능성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절망적인 경험, 즉 세계에 전혀 속하지 않은 경험인 외로움에 기초”¹⁵⁾하고 있다.

3. 고독의 역능과 존재의 개방성

3-1. 고독의 절차로서의 ‘반복’과 의지

빔 벤더스 감독의 <퍼펙트 데이즈>(2023)는 ‘반복’이 고독의 중요한 절차임을 보여주는 영화이다. 영화의 서사는 무척 간결하다. 주인공 ‘히라야마’는 도쿄 시부야의 공공시설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는 60대 중후반의 남자이다. 조그마한 연립 건물에 홀로 살고 있는 그는 늘 같은 시각에 기상을 하고, 도쿄 시내의 화장실을 다니며 청소를 한다. 일과를 마치면 목욕탕에 들른 후 늘 가던 식당에서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귀가 후에는 책을 읽

15) 천명주, 「한나 아렌트의 고독 속의 도덕적·치유적·정치적 기능에 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 제38호,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9. 398쪽.

다가 잠이 드는데, 이것이 영화 내내 반복되는 그의 일상이다. 주말에는 서점과 세탁소에 들르며, 가끔은 늘 가던 작은 바에서 가볍게 술을 마시기도 한다. 영화는 노인 히라야마의 반복된 일상을 집요하게 쫓아가며 카메라에 담는다. 그렇다고 그가 “관계의 박탈성이 드러난 가장 극단적이고 반인간적 형태”¹⁶⁾인 고립의 상태이거나, “자기 자신과의 교체”에 함몰된 외로운 노인도, “의무라는 지옥”¹⁷⁾에 갇힌 강박증자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반복되는 일상이 고독으로 진입하는 절차라는 점이다. 언급했듯이 영화 속 ‘히라야마’의 삶은 반복 그 자체이다. 그의 하루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물건의 배치와 수거 방식, 식사와 사진 찍는 장소, 마시는 음료수도 정해져 있다. 그는 일상의 루틴을 ‘최선’을 다해 반복한다.

물론 이러한 반복은 히라야마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카메라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히라야마의 시선을 따라 정물화와 같은 도심의 동일한 정경을 반복적으로 제시한다. 히라야마는 새벽 일찍 자신의 소형 용달차를 몰고 일터로 향한다. 이때 영화가 강조하여 제시하는 공간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도쿄의 도로이다. 도로 위로 출근을 서두르는 자동차의 행렬이 카메라의 프레임 속에 가득 잡힌다. 일차적으로 복잡한 도쿄의 도심 도로는 다양한 인종과 성차, 계층으로 구성된 도시의 복잡성과 다양성의 의미로, 또는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이라는 동일한 루틴의 반복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욕망의 차원에서 볼 때 복잡하게 얽혀있는 도로란 결국 규칙과 질서에 따라 정해진 목표를 향하고 있는 욕망의 좌표에 다름 아니다.

화장실 청소 알바생 : 젠장!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돈 없으면 사랑도 못 한다니 뭘 놈의 세상이 이래요?

16)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 역, 한길사, 2023, 142쪽.

17) 드니즈 라쇼, 『강박증:의무의 감옥』, 홍준기 역, 아난케, 2007, 16쪽.

화장실 청소 알바생의 대사는 단지 돈이 없어 데이트를 할 수 없다는 푸념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 모든 문제는 ‘돈’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굳건한 믿음, 이른바 ‘소비가 너희를 구원하리라’는 행복 이데올로기의 절대적 명령이며, 이것이 현대인들을 매일 아침마다 거리로 내모는 동력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결국 도심의 복잡한 도로는 결국 화폐의 순환로이며, 반복되는 도심의 삶은 말 그대로 도심의 욕망이 순환하는 생태계이다. 도쿄의 시민들은 사회가 가리키는 욕망을 향해 오늘도 지루한 반복을 불평 없이 반복한다.

중요한 점은 히라야마의 반복과 도시인의 반복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실천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다 분명하게 말하자면 히라야마의 ‘반복’은 ‘선택’이 아닌 ‘의지(will)’의 산물이다. ‘선택’과 ‘의지’는 자발성의 측면에서 중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구별되는 개념이다.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선택(choice)’에 해당하는 프로아이레시스(proairesis)는 ‘선택’을 뜻하는 명사 ‘airesis’와 ‘전에’, ‘미리’ 등을 뜻하는 접두사 ‘pro’가 붙어 형성된 용어으로써, 『니코마스 윤리학』에서는 “다른 것보다 먼저 선택된 것”¹⁸⁾으로 정의되고 있다. 시간의 관점에서 ‘선택’은 이미 존재했던 것들(가능태)에 기반하는 ‘과거로부터의 귀결’이다.¹⁹⁾ 다시 말해 ‘선택’은 주어진 조건들에 기반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지속이다. 반면 ‘의지’는 과거와의 단절이다. 미래가 과거의 연장이라면 그것을 더 이상 미래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지는 과거를 절단하면서 도래한 적 없는 미래를 지향한다. ‘의지’를 “미래를 위한 기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8) 아리스토텔레스, 앞의 책, 98쪽.

19) 가능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미래란 곧 과거의 연장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장인이 만든 청동구는 이미 물질로서의 질료와 장인의 정신 속 형상의 형태로, 즉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의 재현이라는 점에서 미래는 과거의 귀결인 것이다.(한나 아렌트, 『정신의 삶-사유와 의지』, 344-345쪽.)

(‘의지하다 to will’은 본동사가 의지 활동을 나타내지만, 조동사로서 ‘will’은 미래를 지칭한다).²⁰⁾ ‘의지’의 행위는 선택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오히려 선택지를 넘어서며 결별하는 행위라는 차원에서 ‘미래적 사건’이다. 그래서 아렌트는 “행위에 선행해야 하는 어떤 정신 상태”²¹⁾인 선택은 의지가 아님을 분명히 못 박고 있다. 의지는 “결코 시작을 소유하지 않았으며, 망각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그것을 버리고 포기”²²⁾하며 ““존재했던(it was)’ 것에 직면하여 더 이상 말할 어느 것도 갖고 있지 않”²³⁾은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히라야마의 ‘반복’은 아렌트가 말한 ‘의지’의 실천이다. 영화 속 도쿄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이란 어제의 지속이자 행복 이데올로기를 위해 주어진 선택지를 반복한 결과이다. 그들에게 반복이란 주어진 욕망의 순환계에 남기 위한 실천이자 ‘어제의 존재’, 즉 과거의 동일자로 남기 위한 선택의 결과이다. 반면 히라야마의 일상은 형식적으로 ‘차이 없는 반복’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의 내부를 변성(alte-ré, 變性)시키는 작인(作因)이다. 핵심은 히라야마의 반복이 어제의 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의지로서의 반복이라는 점이다. 도쿄의 시민들에게 반복이 ‘어제의 나’로 남기 위한 것이라면, 히라야마의 반복은 어제의 연속을 무효화하고 단절하기 위한 것이다. 도쿄의 일상을 바라보는 히라야마의 얼굴에 긴장감과 단호함이 서려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상의 욕망에 포획되지 않겠다는, 어제의 동일자로 남지 않겠다는 절대적 단절의 의지인 것이다.

이것이 히라야마의 반복을 지루함을 잊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는 이유다. 하이데거는 지루함(권태)을 머무적거리는 시간의 흐름이 우리를 붙잡

20) 위의 책, 343쪽.

21) 위의 책, 345쪽.

22) 위의 책, 555쪽.

23) 위의 책, 559쪽.

아 공허 속에 버려둠(방치함)의 상태로 보았으며, 여기서 빠져나가려는 행위를 ‘기분 전환’이라 보았다.²⁴⁾ 말 그대로 기분 전환이란 지루함을 소거하기 위해 ‘해야 할 무언가’를 찾아 반복하거나 열중하는 상태이다. 문제는 기분 전환이 지루함의 역능을 소멸시키는데 있다. 하이데거는 지루함의 극한이야말로 ‘자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유한성의 존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았다. 그가 기분 전환을 ‘속물적’이라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기분 전환은 존재를 과거에 ‘붙들어’ 둔다. 그래서 기분 전환의 존재는 욕망의 환유적 구조에 사로잡힌 강박증자이다. 따라서 기분 전환은 존재의 개방성을 외면하고 다시 지루함 ‘이전’의 존재로 되돌리려는 ‘선택’에 불과하다. 노인들이 기분 전환에 집착하는 이유가 ‘어제의 나’로 남기 위해서이며, 현대인들이 동일한 삶을 반복하는 이유도 타자가 부여한 욕망의 좌표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런 차원에서 지루함을 잊기 위한 규칙적인 생활(반복)은 의지가 아닌 ‘선택’의 행위이다. 말 그대로 무료함을 잊기 위해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히라야마의 루틴은 ‘어제의 나’에 머물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상이다. 오늘의 히라야마는 어제 그리고 내일의 히라야마와도 다르다. 이는 “그 자신이 아닌 채로 그 자신”이 되는 즉, “더 이상 동일자가 아닌 동일자”²⁵⁾의 모습이자 마루야마 겐지가 말한 ‘흐르는 자’의 모습이다.²⁶⁾ 흐르는 자에게 지루함은 자리할 곳이 없으며 과거를 그리워하지도 않는다. 흐르는 자는 변성을 향해 자신을 개방한다. 게다가 히라야마의 반복된 노동은 “부분적 인간으로 불구화”²⁷⁾시키는 소외와도 무관하다. 이것이 ‘스

24) 마르틴 하이데거, 『형이상학의 근본개념들-세계-유한성-고독』, 이기상·강태성 역, 까치, 2003, 176쪽.

25) 장-뤽 낭시, 『나를 만지지 말라』, 이만형·정과리 역, 문학과지성사, 2018, 32-33쪽.

26) 마루야마 겐지, 『천년 동안에』, 김난주 역, 문학동네, 1999. 참조.

27) 마르크스, 『경제학-철학 수고』, 강유원 역, 이론과실천, 2006.

크루지 영감'과의 차이이다. 스크루지도 오차 없는 반복된 일상과 노동을 하고 있지만 그에게는 고립과 지루한 소모의 나날이 지속될 뿐이다. “존재했던 것에 대한 의지의 적대감은” 과거를 “사라지게 하는 의지”²⁸⁾이자 히라야마를 무한성의 미래로 안내하는 동력이다.

니코 : 나는? 난 어느 쪽 세상에 사는데? 이 강 따라가면 바다야?

히라야마 : 응, 바다지.

니코 : 같까?

히라야마 : 다음에.

니코 : 다음이 언제데?

히라야마 : 다음은 다음이지.

니코 : 다음이 언제냐고?

히라야마 : 다음은 다음이고 지금은 지금이야(今度は今度, 今は今).

니코 : 다음은 다음이고, 지금은 지금.

히라야마에게 ‘다음’은 ‘지금’의 연장이 아니다. 어제의 연장으로서의 ‘지금’과 도래할 ‘다음’ 사이에는 단절이 존재한다. ‘다음’은 말 그대로 ‘다음’이다. 과거의 지속인 ‘지금’이 예측가능한 필연성의 세계라면, ‘다음’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우연성의 세계다. 이 세계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으며 아직 존재하지 않고 결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문제들”로 이끈다. ‘다음’으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도약’이 요구된다. 이 도약이야말로 “미래로 자신을 내던짐으로써 자신의 자연적 한계를 초월”²⁹⁾하게 해준다. 히라야마가 출근을 위해 작업복을 입고 열쇠와 잔돈을 챙기는 모습은 매번 새로운 모험을 위해 “나는 방랑을 쉴 수 없도다”³⁰⁾라는 도약의 루틴

28) 한나 아렌트, 『정신의 삶-사유와 의지』, 559쪽.

29) 위의 책, 343쪽.

이다. 기분 전환의 반복이 과거의 강화와 유지를 위한 행위라면, 히라야마의 반복은 과거의 정지와 존재의 개방을 위한 실천이다.

3-2. 실어증과 거식증 그리고 세계의 거부

영화 <퍼펙트 데이즈>에는 대사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주인공 히라야마의 대사로도 영화 시작 후 1시간이 지나서야 나올 정도이다. 게다가 그의 언어는 최소한으로 축소되어 있으며 그나마도 몸짓과 표정이 대부분이다. 그의 침묵은 유사 실어증을 떠올린다. 히스테리의 대표적 증상인 ‘실어증’은 ‘말할 수 없음’이 아니라 ‘말하지 않음’이다. 이는 의지가 수반된 거부의 표현으로, 프로이트의 환자 ‘안나 O’의 실어증이 억압적이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언어(독일어)에 대한 거부의 시도였듯이, 히라야마의 유사 실어증도 이와 유사하다. 영화에서 히라야마의 실어증의 계기는 매우 함축적인 방식으로 등장하는데, 가출한 조카 니코를 데리러 온 누이의 대사가 전부이다.

누이동생 : 아버지는... 정신이 온전치 못하시지만 요양원에 한 번 찾아
뵈면 어때? 예전처럼 그러진 않으실 거야.
히라야마 : (말없이 고개를 젓는다)

누이의 대사에는 뭔가 수수께끼로 가득 찬 가족사, 특히 히라야마와 아버지의 갈등이 그 중심에 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운전사가 딸린 고급 승

30) 인용글은 영국 시인 Alfred Lord Tennyson의 시 “Ulysses”이며, <송재평 칼럼 “삶을 그 찌꺼기까지 마시리라”>, 『Michigan Korean Weekly』(2009.5.15.)에서 인용했다. <https://michigankoreans.com/archives/1030>. (검색일: 2025.08.21.)

용차를 타고 온 그녀에게서 풍기는 부잣집 특유의 우아함과 교양미는 히라야마의 부모가 재력가임을 말해 준다. 누이는 히라야마에게 고급 초콜릿을 건네며 "이 초콜릿 좋아했지?"라고 말하는 것에서 히라야마 역시 물질적 안락 속에서 생활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³¹⁾ 중요한 것은 어쨌든 히라야마가 그러한 아버지의 세계와 단절했다는 점이다. 누이는 아버지와 화해를 바라지만 히라야마는 완고하게 거절한다. 거절의 방식이란 아버로 표상되는 대타자의 언어와 결별하는 것이다. 세계의 욕망을 강제하며 견고한 가부장의 위계 속으로 몰아매려는 아버의 폭력적인 언어로부터 스스로 물러서는 행위가 히라야마의 유사 실어증이다. 여기서 안나 O와의 차이가 드러난다. 안나 O의 실어증이 아버에 대한 무의식적 저항이었다면 히라야마의 유사 실어증은 의지의 산물이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세계의 언어를 거부하며 고집스럽게 침묵의 방식으로 저항한다. 이는 "나는 내 어

31) 조금 더 적극적인 추론을 해 보자면, 히라야마와 아버와의 갈등의 중핵에는 근친상간이 자리하고 있다. 영화는 조심스럽게 누이동생의 딸 '니코'가 히라야마의 딸이라고 연상할 만한 장면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가출한 니코가 삼촌 히라야마를 무척 따르다는 점이다. 니코는 가출을 떠 올릴 때면 삼촌에게 가기로 마음먹고 있었으며, 어린 시절 삼촌이 주었던 수동식 카메라도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 또 하나는 영화가 의도적으로 히라야마와 니코의 유사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는 장면에서 영화는 마치 부모와 자식의 유전적 동일성을 강조하듯 같은 타이밍에 똑같은 자세로 우유를 마시고, 같은 포즈로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담아낸다. 그리고 히라야마가 좋아하는 나무를 어루만지고, 사진을 찍는 니코의 모습도 담아낸다. 부녀 관계임을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 중의 하나가 니코의 대사이다. 니코는 히라야마에게 "엄마랑 삼촌 하나도 안 닮았어"라고, 그리고 "삼촌이랑 엄마... 사이 안 좋아? 삼촌 얘기 할 때마다 말을 돌려"라고 말한다. 조금도 닮지 않은 남매 관계, 그 사이에서 히라야마를 빼놓은 조카 니코는 히라야마와 누이의 관계가 범상치 않음을 느낄 수 있다. 무엇보다 니코를 찾아온 누이동생의 표정과 이를 바라보는 히라야마의 태도는 적어도 일반적인 남매의 모습은 아니다. 그들 사이에는 말 못 할 사연들로 심연을 이루고 있으며, 떠나는 누이를 껴안는 히라야마의 절절함과 이를 받아들이는 누이의 표정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다. 말 못할 가족사의 사건이 히라야마가 아버를 포함해 가족과 단절하게 된 연유로 보인다.

휘 목록에서 한 단어씩 차례로 제거해버렸다. 학살이 끝나자 단어 하나만 살아남았다. 고독이라는 단어가, 나는 뿌듯한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났다”³²⁾는 에밀 시오랑의 말처럼 결여로 구성된 욕망의 언어를 차단하려는 의지의 실천이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단지 ‘말 없음’이 아니다. 히라야마는 침묵의 소리와 함께 미소 등의 표정과 몸짓으로 의미를 생산하고 재현한다. 이러한 히라야마의 언어는 답답함을 넘어 벤야민이 말했던 ‘아담의 언어’처럼 사물의 내면과 본질을 읽고 드러낸다.³³⁾ 그가 나무를 향해 친구라고 말하며, 거리를 방황하는 노숙자의 알 수 없는 몸짓에 미소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독의 또 다른 절차로 거식증이 있다. 영화 속 히라야마는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다. 아침은 거르며, 점심 식사는 편의점에서 구입한 얇은 샌드위치 하나이다. 저녁 식사도 식당에서 간단히 해결한다. 군것질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국 샌드위치 하나와 소량의 저녁 식사가 하루 식사량의 전부이다. 정신분석에서 거식증은 실어증과 마찬가지로 세계의 거부이다. 그것은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것, 즉 ‘공백’을 먹으려는 행위이다. 영화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파탑인 스카이트리를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도쿄타워는 주변의 높은 건물로 인해 NHK와 도쿄권 민영방송사의 방송을 각 가정에 송신하는 데 장애를 겪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카이트리를 건설했다. 스카이트리가 유통하는 방송사의 프로그램이란 결국 ‘행복 사회의 매뉴얼’이다. ‘행복 사회’의 종착지는 “여러분 절대 밖을 보지 마세요. 줄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남들의 시선을 언제나 맨 앞에 두시고요. 주어진 틀에서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아늑해요.”라는

32) 에밀 시오랑, 『태어났음의 불편함』, 김정란 역, 현암사, 2023, 155쪽.

33) 아담의 언어에 대해서는 발터 벤야민,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번역자의 과제 외』, 최성만 역, 길, 2021. 참조.

헤이딜러(hey dealer) 광고 문구처럼 ‘안락한 생존’이다. ‘안락함’의 추구에는 모험이나 고통이 요구되지 않는다. ‘안락함’은 타자의 욕망을 반복하며 언제나 ‘어제의 존재’로 되돌아오는 ‘타임 루프(Time Loop)’의 삶이다. 스카이트리는 도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군가의 눈이 우리를 보고”³⁴⁾ 있다는 대타자의 응시이다. 대중은 대타자의 응시에 사로잡혀 타자의 욕망을 무한 섭취하려는 폭식증자이다. 하지만 히라야마는 욕망의 팔루스를 무심히 힐끗 쳐다볼 뿐이다. 그리고는 세계의 욕망을 비웃듯 살짝 웃음을 짓고는 그냥 지나친다. 히라야마의 유사-거식증은 세상이 던져주는 쾌락을 먹지 않겠다는 의지이다.

그렇다면 히라야마는 세계와의 완전한 단절을 꿈꾸는가? 그렇지 않다. 그가 최선을 다해 대화하고 먹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책이다. 영화 속 히라야마는 취침 전과 휴일이면 소설책을 읽는다. 책 읽기도 반복되는 루틴 중의 하나이다. 책상 하나 없는 단출한 그의 방을 채우고 있는 것은 낮은 책장과 그곳을 가득 채운 책들이다. 책은 히라야마의 말처럼 “연결된 것처럼 보여도 연결되지 않은 세상”이다. 히라야마와 돈키호테의 공통점은 “연결된 것처럼 보여도 연결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점이다. 돈키호테가 “생각하거나 눈으로 보거나 상상하는 모든 것이 현실이자 책에서 읽은 그대로였기 때문에”³⁵⁾ “책에서 읽은 몽환적인 이야기들이 진실이라고 생각했으며,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확실한 이야기는 없다고 확신”³⁶⁾했듯이, 히라야마도 텍스트에서 실재의 세계를 본다. 현실의 실재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들은 ‘비정상인’이다. 하지만 그들은 허구의 텍스트를 통해 현실의 환상성을 발견한다.

34) 자크-알랭 밀레 편, 『자크 라캉 세미나11』, 맹정현·이수련 역, 한길사, 2008, 114쪽.

35) 미겔 데 세르반테스, 『돈키호테』1, 박철 역, 시공사, 2023, 62쪽.

36) 위의 책, 53쪽.

모든 것 안에서 비현실성을 간파하면, 우리 자신이 비현실적인 존재가 된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 뒤에 살아남은 자가 되기 시작한다. 우리의 생명력이 아무리 강하고, 우리의 본능이 아무리 막강한 것이라고 해도, 우리는 이미 죽은 것이다. 그것들은 이제 가짜 본능들, 가짜 생명력에 불과하다.³⁷⁾

우리의 욕망이 실은 타자의 욕망이자 그것의 반복과 모방에 불과했으며, '성공적인 인생'이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소비의 신화임을 인식했을 때 비로소 이 세계가 거대한 환상의 구조물임을 깨닫게 된다. 환상 속에서 "가짜 본능들, 가짜 생명력"을 흡수하는 우리는 '이미 죽은 것(living dead)'이다. 돈키호테와 히라야마는 텍스트라는 환상을 통해 자신들이 '이미 죽은 존재', 즉 "비현실적인 존재"임을 인식한 자들이다. 환상의 역능이 여기에 있다. 고대 그리스의 전설적 화가인 제욱시스와 파라시오스의 이야기는 가상과 실재의 관계를 보여준다.³⁸⁾ 제욱시스가 가상을 실제로 믿게 만드는 자라면, 파라시오스는 가상을 통해 실재라고 믿었던 것이 가상이었음을 폭로하는 자이다.³⁹⁾ 파라시오스의 위대성은 바로 현실의 가상을 폭로하고 그 너머의 욕망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데 있다. 마찬가지로 돈키호테와 히라야마가 텍스트를 통해 발견한 것이 바로 세계-욕망의 환타즘(phantasm)이다.

니코 : 엄마 말이 삼촌은 우리랑 다른 세상에 산대.

37) 에밀 시오랑, 앞의 책, 162쪽.

38) 제욱시스는 자신이 그린 포도송이를 먹기 위해 새들이 날아올 정도로 매우 사실적인 방식으로 재현하는 화가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파라시오스의 명성을 듣게 된 제욱시스는 파라시오스를 찾아간다. 제욱시스는 파라시오스에게 그림을 보여 줄 것을 요구하다가 눈앞의 베일을 보게 된다. 베일 뒤에 그림이 있으리라 생각한 제욱시스는 베일을 걷으려던 순간 그 베일이 바로 그림임을 알게 된다. 제욱시스는 새들의 눈을 속인 자신보다 화가의 눈을 속인 파라시오스가 더 위대하다고 선언한다.

39) 서동수, 『언캐니한 것들의 목소리』, MW BOOKS, 2025, 37쪽.

히라야마 : 그럴지도 모르지.

니코 : 정말?

히라야마 : 알고 보면 이 세상은 수많은 세상으로 이뤄져 있거든. 연결된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은 세상도 있지. 내가 사는 세상과……니코 엄마가 사는 세상은 많이 달라.

가출한 누이의 딸 니코가 말한 두 개의 세계는 대타자의 세계와 그로부터 벗어난 세계의 다른 표현이다. 니코의 어머니 히라야마가 현실(real)과 분리된 환타즘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믿는다. 부모의 재력 하에서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포기하고 홀로 궁핍하게 외로운 삶을 고집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히라야마의 눈에는 누이야말로 환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 부모라는 대타자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으로 오인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허구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현실과 환상의 세계가 명확히 구분된 것은 아니다. 히라야마의 말처럼 “이 세상은 수많은 세상으로 이뤄져 있거든. 연결된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은 세상도” 있기 때문이다. 히라야마 역시 대타자의 자장 속에 존재하고 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히라야마는 환상과 실재(the real)가 중첩된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 그는 세계 내의 존재이지만 세계의 욕망을 섭취하지 않는다. 한편 그에게 세계는 일종의 텍스트이다. 그곳에는 타자에 의해 쓰인 텍스트로서의 존재와 자신이 써가는 텍스트로서의 존재로 나뉜다. 여기서 히라야마의 반복이 갖는 힘의 정체가 등장한다. 히라야마의 루틴은 쓰여짐에 대한 거부뿐만 아니라 환상에서 분리된 진정한 현실(reality)을 구성하는 동력이 된다.

3-3. 사물의 목소리와 고통의 시학

히라야마에게 일상의 반복, 실어증, 거식증은 고독을 향한 절차였다. 그

리고 그가 도달한 고독의 귀착지는 사물의 발견이다. 영화는 유독 배경음을 증폭시킨다. 물건을 놓거나 잡는 소리, 옷을 입는 소리, 화분에 물을 주는 소리 등 일상의 소리를 필요 이상으로 강조한다. 자동차의 시동 소리, 카세트 테이프를 고르는 소리, 음악 소리 등도 모두 과장되어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소리의 주인’인 사물의 ‘거기에 있음’을 알리는 목소리이다.

“사물들만이 내게 말을 걸어옵니다. 로댕의 사물들, 고딕식 대성당의 사물들, 완전한 사물들만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물들은 내게 활동적이며 생명이 있는 세계를 제시해 줍니다.”⁴⁰⁾

일상은 사물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다. 사물은 항상 ‘그곳에 있음’이며, 그들의 소리는 의미를 소유하지 못한 소음이다. 일상에서 “소음은 음향적 오염일뿐만 아니라 시각적 오염이기도 하다”.⁴¹⁾ 그래서 일상은 소음과 그 대상을 혐오한다. 하지만 고독은 사물을 낯설게 만든다. 고독은 사물의 정물화에 저항하며, ‘그곳에 있음’의 존재에 ‘의미’를 붙여 넣는다. 고독은 사물의 모습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인이다. 고독은 사물이 존재로서 ‘거기 있음’을 바라보게 해준다. 히라야마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히라야마는 이른 아침 거리의 빗길 소리에 잠을 깨고, 발길을 따라 울리는 다다미 바닥의 소리와 수돗물 소리, 양치하는 소리, 그리고 출퇴근길 차 안을 가득 울리는 음악과 사물과 청소도구가 빚어내는 소리에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한다. 히라야마를 살아 있게 하는 것은 ‘소리’이다.

데리다에게 사물은 ‘철저한 타자’이다. 하지만 고독은 그 타자를 응시한다. 사람들에게 일상의 사물은 그저 어디서나 보고 만질 수 있는 익숙한 대

40) R. M. 릴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13쪽.

41) 한병철, 『사물의 소멸』, 전대호 역, 김영사, 2022, 117쪽.

상일 뿐이다. 사물은 눈여김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고독은 ‘철저한 타자’를 응시하고 그들에게 말을 건넨다. 영화에서 중요한 모티브는 나무이다. 히라야마는 아침마다 분무기로 집안의 화분에 물을 주고, 점심 식사도 공원의 ‘나무’ 아래에서 한다. 지금 그가 읽고 있는 책은 윌리엄 포크너의 『야생종려나무』와 고다 아야의 『나무』처럼 모두 나무와 관련된 책이다. 조카에게 말했듯 ‘나무’는 그의 유일한 ‘친구(ともだち)’이며, 점심 식사를 위해 신사(神社)를 찾는 이유도 그곳에 나무가 있기 때문이다. 나무를 올려다보는 히라야마의 눈빛과 미소는 흥미롭다. 마치 갓 사귀 연인을 바라보듯, 그의 눈빛과 미소에는 수줍음과 흐뭇함이 있다. 히라야마는 점심 식사 후 매번 필름식 카메라에 나무를 담는다. 하지만 눈으로 피사체를 바라보는 방식이 아니라 손을 뻗어 대충 렌즈를 고정시킨 후 찍는다. 그가 사물(친구)을 대하는 방식이다. 그는 자신의 시선 속에 존재를 가두지 않는다. 친구는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거기 있음’의 존재이다. 사물은 아버지의 법처럼 그를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 거리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충만함을 안겨준다. 이러한 태도는 흔히 말하는 자연예찬이 아니다. 히라야마는 생태주의자도 환경주의자도 아니다. 그와 사물의 관계는 세계와의 새로운 관계 맺기이다.

그는 스스로 나무(사물)가 된다. 나무처럼 히라야마도 고독 속에 존재하며 신성한 침묵으로 말을 건네고, 폭식 따위는 하지 않는다. 나무처럼 그 역시 세계를 향해 달려가지 않는다. 대신 세계가 그에게 다가온다. 나무처럼 히라야마는 다가오는 타자를 모두 환대한다. 알바 청소부와 그의 여자 친구 그리고 가출한 조카까지 모두 히라야마라는 나무 곁에서 위안을 얻고 자신의 길을 떠난다. 히라야마는 나무이다. 눈에 띄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사물이다. 나무가 “온몸이 으스스하도록/으스스하도록 부르터지면서/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짝을 내밀고/천천

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⁴²⁾되듯, 히라야마도 온몸의 의지로 어제와 다른 히라야마가 된다.

영화의 마지막 4분 내내 히라야마는 니나 시몬(Nina Simone)의 노래 ‘Feeling Good’을 들으면서 웃음과 울음을 반복한다. 이는 고통의 고통과 그에 대한 애도이다. 세계와의 단절은 고통이다. 그는 사랑하는 여동생을 비롯해 가족 및 과거의 삶과도 단절된 삶을 살아야 했다. 고통의 근본 원인은 아렌트가 말했던 “한 사람-안에-두 사람” 때문이다. ‘세계 내’의 존재는 그를 과거의 세계로 유혹한다. 가출한 조카를 찾으러 온 여동생을 포옹하며 끝내 울음을 터트린 것도 죄책감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 밖’의 존재는 그마저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두 존재의 분리가 고통의 근원이다. 강박증자들에게 변화는 두려움이다. 그들은 ‘변화를 원치 않는 방식으로 변화하기를 바란다. 즉 원하는 방향으로만 변화하기를 바란다.’⁴³⁾ 그들은 존재의 균열을 가져올 저 낯선 타자를 살해함으로써 ‘변화 없는 변화’의 일상성을 유지한다.

하지만 히라야마는 바로 그 ‘세계 내’ 존재를 살해한다. 이로써 그는 세상의 낯선 존재, 이른바 언캐니(unheimlich)한 존재가 된다. 이질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고통의 부정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긍정은 자기 만족적이며 자기 도취적이다. 하지만 고통은 사유에 깊이를 부여한다. 사유는 “오직 갈기갈기 찢기다시피 한 내적 자기분열을 통해서만 그의 진리를 획득한다.” 다시 말해 “부정적인 것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바로 그 부정적인 것에 의지하여 그 속에 머무를 수”⁴⁴⁾ 있을 때 비로소 “한 사람-안

42)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민음사, 1999, 81-82쪽.

43) 백상현, 『고독의 매뉴얼』, 위고, 2022, 83쪽.

에-두 사람”에서 떨어져 나와 ‘개별화’에 이를 수 있다. 존재의 개별화는 “개개의 모든 인간이 그 속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모든 사물들의 본질적인 것의 가까이에 이르게 되는, 즉 세계의 가까이에 이르게 되는 고독화”⁴⁵⁾이다. 히라야마는 고통의 부정성과 함께 머무는 자이다. 그의 일상은 고요와 평안으로 가득 차 있는 듯 보이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과거를 갈망하는 유한성의 존재가 남아있다. 히라야마에게 고통의 절차는 ‘세계 내’의 존재를 살해해야 하는 고통의 과정이다. 하지만 고통의 사건은 세계에 대한 완전히 다른 관점과 함께 세계 너머를 산출해낸다. 히라야마는 고통 속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을 알아본다. 히라야마의 행복은 앤딩썸에 나오는 니나 시몬의 노래 가사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높이 나는 새들이/너희들은 내 기분을 알 거야/하늘의 태양아/넌 내 기분을 알 거야/ 끝을 떠도는 바람아/넌 내 기분을 알 거야/새로운 새벽이야/ 새로운 날이야/날 위한 새로운 인생이야/(중략)/별들이, 너희가 빛을 낼 때면/내 기분을 알겠지/소나무의 향아/내 기분을 알겠지/자유는 내 것이야/ 내 기분을 알지/새로운 새벽이야/새로운 낮이야/내겐 새로 열린 인생이야/오, 기분이 좋아.⁴⁶⁾

주말 오후, 좁은 방에 한가롭게 누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코모레비(こもれび,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 사이로 루 리드(Lou Reed)의 ‘퍼펙트 데이(Perfect Day)’를 들으며 책을 읽고 있는 히라야마. 고통 속에서 새들과 바람과 태양과 교감하면서 매일 매일 새롭게 재생하는 자신을 보

44) 헤겔, 『정신현상학』 I, 임석진 역, 지식산업사, 1994, 92쪽.

45) 마르틴 하이데거, 앞의 책, 27쪽.

46) 가사 해석은 <https://blog.naver.com/wngml3565/223523349995>(검색일: 2025.08.21.) 참조.

며 “날 위한 새로운 인생이야, 오! 기분이 좋아”라고 느끼는 히라야마. 그는 그렇게 ‘퍼펙트 데이즈’의 주인공이 된다.

4. 결론

이상으로 영화 〈퍼펙트 데이즈〉를 중심으로 오늘날 고독이 갖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 살펴보았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의 고독은 외로움과 구분되지 못한 채 성공적인 노년의 장애물이자 사회적 질병으로 치부되고 있다. 대신 첨단 과학기술과 결합한 항노화의학은 줄기세포, 유전자 조작, 나노기술, 항노화제 등을 앞세워 노화 정복의 유토피아적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정해야 하는 진실은 ‘모두가 늙고 있다’는 것이다. 늙음은 ‘세계 내 존재’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간이다. 항노화 기술은 임박한 파국을 잠시 유예할 수는 있으나 몰락을 막을 수는 없다. 종말을 피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노인에게 대해 시인은 이렇게 말한다. “부러지지 않고 죽어 있는 날렵한 가지들은 추악하다”.⁴⁷⁾ 그 추함에 대한 청년 세대의 현시는 ‘뜰딱충’과 ‘딸피(피가 딸립)’라는 새로운 호칭이다. 또한 청년 세대는 카페, 식당, 헬스장 등에 노시니어존이라는 방어벽 설치도 잊지 않는다. 환영받을 방법이 없지는 않다. 바로 ‘쓸모없는 육신’을 위해 잔뜩 소비하는 고객이 되면 된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아낌없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부모는 만기일과 보상금을 알 수 없는 보험 상품 같은 것이다. 따라서 만기일은 앞당기고 보상금을 최대한 보장해주면 된다. 그럴 용기가 없다면 그냥 ‘뜰딱’거리며 죽지도 않는 좀비 취급을 받으며 살면 된다. 미디어

47) 기형도, 『노인들』, 『입 속의 검은 잎』, 문학과지성사, 1989. 76쪽.

는 세대 간 소통이 가능할 것처럼 외치고 있지만 역사가 말해주듯이 애당초 불가능한 환상이며, 모두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나를 만지지 말라’의 시대에 ‘노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애당초 양립 불가능한 사건이다.

노인에게 외로움과 고독은 필연적인 사태이다. 이는 재산의 크기나 건강의 유무와 무관하게 닥쳐오는 사건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결여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외로움과 달리 고독은 “일부러 거리감을 두고 ‘홀로’ 있는 상태”⁴⁸⁾이다. 릴케는 고독이 “당신의 의지처와 고향이 될 것이며, 그 고독으로 해서 당신은 자신의 길을 발견할”⁴⁹⁾ 수 있다고 말한다. 한나 아렌트에게 고독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고독은 “한 사람-안에-두 사람”이 나누는 ‘나와 나’의 대화이며, “한 사람-안의-두 사람이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정체성과 결코 오인될 수 없는 정체성을 가진 불변의 개인이 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필요”⁵⁰⁾로 하는 행위이다. 이처럼 고독을 예찬한 자들의 공통점은 진정한 ‘자기 발견’이다. 진정한 자기 발견은 ‘홀로 있음’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고립이나 허무주의가 아닌 ‘거리두기’이다. 고독의 절차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세계의 욕망에 무심해야 한다. 진리의 발견은 진리 밖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퍼펙트 데이즈>의 히라야마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히라야마는 평생을 타자의 욕망만을 쫓던 삶에서 벗어나 고독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도 발견하고,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고요와 평안을 만끽한다. 그는, 노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가부장적인 법을 강제하려는 가족의 외부를 선택한다. 이것은 냉소주의가 아니다. 냉소주의자는 슬로터다이크의 말처럼

48) 정지욱, 『고독』, 일조각, 2024, 36쪽. 참조.

49) R. M. 릴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홍경호 역, 범우문고, 1987, 44쪽.

50)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 2』, 284-285쪽.

“상황 논리나 자기 보존의 욕망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⁵¹⁾하면서 자신을 희생자로 인식한다. 그런 면에서 냉소주의는 최악의 현실주의이다. 하지만 히라이마의 고독은 니힐리즘이다. 그의 고독은 세계와 존재 간의 간극을 만들지만, 이는 소외나 허무 또는 절망의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세상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길을 찾아야 하고, 어떻게든 세상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서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는”⁵²⁾ 태도이다. 그런 차원에서 히라이마의 고독은 또 다른 전망을 향하는 ‘메시아적 니힐리즘’⁵³⁾의 실천이다.

고독의 출입문은 작고 허름해서 몸을 집어넣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입구에 들어서면 순간 세계 너머의 세계를 선사한다. 고독은 우리가 진정 찾아야 하고 만나야 할 ‘그것(Das Ding)’을 우리 앞에 선사한다. 세상이 주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이로움’, 고독은 그 경이로움을 안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노년이란 세상의 욕망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찾아 떠날 수 있는 마지막 때이다. 이는 시작의 끝이 아닌 끝의 시작이자, 비로소 ‘새로운 삶(Vita Nova)’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51) 페터 슬로터다이크, 『냉소적 이성 비판』, 이진우·박미애 역, 에코리브르, 2015, 47쪽.

52) G. K. 체스터턴, 『정통』, 홍병룡 역, 아바서원, 2020, 181쪽.

53) 발터 벤야민, 「신학적·정치적 단편」,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외』, 최성만 역, 길, 2015. 참조.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빔 벤더스, <퍼펙트 데이즈>, 2023.

2. 논문과 단행본

기형도, 『입 속의 검은 잎』, 문학과지성사, 1989.

김준표·남석인, 「노인의 고독감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제35권 3호, 한국노년학회, 2015, 671-687쪽.

김형석, 『고독이라는 병』, 비전과리더십, 2022.

드니즈 라쇼, 『강박증:의무의 감옥』, 홍준기 역, 아난케, 2007.

라르스 스벤젠, 『외로움의 철학』, 이세진 역, 청미, 2024.

라이너 마리아 릴케, 『고독』, 윤동하 역편, 태학당, 1992.

_____, 『짧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홍경호 역, 범우문고, 1987.

마루야마 겐지, 『천년 동안에』, 김난주 역, 문학동네, 1999.

마르크스, 『경제학-철학 수고』, 강유원 역, 이론과실천, 2006.

마르틴 하이데거, 『형이상학의 근본개념들-세계-유한성-고독』, 이기상·강태성 역, 까치, 2003.

미겔 데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1』, 박철 역, 시공사, 2023.

발터 벤야민,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번역자의 과제 외』, 최성만 역, 길, 2021.

_____,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외』, 최성만 역, 길, 2015.

백상현, 『고독의 매뉴얼』, 위고, 2022.

서동수, 『언캐니한 것들의 목소리』, MW BOOKS, 2025.

슬라보예 지젝,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이수련 역, 새물결, 2021.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스 윤리학」, 천병희 역, 숲, 2022.

에밀 시오랑, 『태어났음의 불편함』, 김정란 역, 현암사, 2023.

이종운·이미애, 「도시거주 고령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고독감과 사회적 지지

- 의 구조적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4권 2호, 한국콘텐츠학회, 2023.12, 497-506쪽.
- 자크-알랭 밀레 편, 『자크 라캉 세미나11』, 맹정현·이수련 역, 한길사, 2008.
- 장-뤽 낭시, 『나를 만지지 말라』, 이만형·정과리 역, 문학과지성사, 2018.
- 정지욱, 『고독』, 일조각, 2024.
- 천명주, 『한나 아렌트의 고독 속의 도덕적·치유적·정치적 기능에 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 제38호,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9. 385-418쪽.
- 페터 슬로터다이크, 『냉소적 이성 비판』, 이진우·박미애 역, 에코리브르, 2015.
-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 역, 한길사, 2019.
- _____, 『전체주의의 기원 2』, 이진우·박미애 역, 한길사, 2023
- _____, 『정신의 삶-사유와 의지』, 홍원표 역, 푸른숲, 2023.
- 한병철, 『사물의 소멸』, 전대호 역, 김영사, 2022.
- 헤겔, 『정신현상학 I』, 임석진 역, 지식산업사, 1994.
-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어로』, 민음사, 2019.
- G. K. 체스터턴, 『정통』, 홍병룡 역, 아바서원, 2020.

Abstract

Old Age, the Will to Solitude, and Vita Nova - Focusing on the Film *Perfect Days*

Seo, Dong-Soo(Shinhan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significance and potentiality of solitude in old age within a super-aged society, focusing on Wim Wenders' film *Perfect Days*.

While solitude is often regarded today as either a hindrance to successful aging or a pathological condition, the film presents it as a necessary and affirmative dimension of life. The protagonist Hirayama, a man in his late sixties, embodies a practice of solitude distinct from mere loneliness. Unlike loneliness, which signals loss, exhaustion, and powerlessness, Hirayama's solitude is a willful openness to existence that takes the self as companion. His repetitive routines and symptoms resembling aphasia and anorexia function as forms of resistance to socially constructed desires, enabling him to approach the being of things themselves. Through his attunement to the voices of marginalized objects, he experiences an affect beyond what the world offers, thereby creating a rich inner world of his own.

In doing so, Hirayama becomes the true protagonist of *Perfect Days*. The film thus reveals both the *raison d'être* and the transformative potential of solitude in contemporary society.

(Keywords: Wim Wenders, *Perfect Days*, old age, solitude, loneliness, Totalitarianism, will, repetition, Aphasia, Anorexia)

논문투고일 : 2025년 8월 25일
논문심사일 : 2025년 10월 15일
수정완료일 : 2025년 10월 17일
게재확정일 : 2025년 10월 20일